

믹타 정상 공동언론발표문 (비공식 번역본)

믹타 정상회담 G20 리우데자네이루 정상회의 2024년 11월 18일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등 므타 정상들은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 계기에 회동했다.

정상들은 11년 전 창설된 므타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국제법 원칙,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을 지지하는 범지역적 파트너십인 점을 상기하였다. 므타 정상들은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하는 세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안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지속가능 발전과 개발재원 조달, 식량안보,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과학·기술혁신과 디지털 협력, 청년과 미래세대, 그리고 다자체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공동 행동 의지에 좌우된다는 인식 하에,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므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므타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충의를 모으는 데 기여하면서 주요 국제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므타 정상들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0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또한 2024년 의장국인 멕시코의 리더십 하에 믹타가 유엔에서 제26차 외교장관회의, 멕시코시티에서 제4차 개발협력 네트워크 회의와 제10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하였음에 주목하였다. 믹타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다자체제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국제체제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18건의 공동발언을 시행하였으며,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였다.

믹타 정상들은 2024년에 멕시코가 성공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멕시코의 세 가지 중점 분야인 1) 다자주의 강화, 2) 여성을 중심에 둔 개발 노력, 3) 개발협력 기관 간 조정 강화에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한국이 믹타 의장국을 수입하는 2025년에 범지역적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사안에 있어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끝.